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 1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 2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해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 3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 4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 1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 2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 3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 4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 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2월 21일(목) 기도 담당 : 이 혁 장로

2019년 2월 20일(수)

이른아침예배

인도 : 고흥석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292장 다 같 이
기 도 곽철영 장로
성 경 봉 독 출애굽기 3:13~15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스스로 있게 될 자니라』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191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출애굽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2월 19일(화)	출 3:6-12	내가 너와 함께 함이 너의 정체성이다
2월 20일(수)	출 3:13-15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스스로 있게 될 자니라
2월 21일(목)	출 3:16-20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리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2월 20일(수)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이른아침예배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이 주신 하루를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스스로 있는 자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한없이 연약하고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폭정 아래 신음하는 이스라엘처럼, 원수와 죄의 억압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먼저 구원하여주시고,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새문안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새문안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담임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며, 담임목사님의 목회비전을 통해 교우들이 한 마음 되어 “말씀이 왕성하여 참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로 더욱 이끌어주옵소서. 협력하는 당회원들과 직분자들에게 성령과 지혜의 충만을 주시어 기도의 무릎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각 제직부서를 비롯한 각 구역과 교회학교 위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 안에서 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모두의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공사도 온전히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 성전 입당 과정이 은혜 가운데 순전히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제2차 북미회담을 친히 이끌어주셔서 복음 안에서 통일의 길이 속히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문안에 속한 모든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교우들에게 치유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